

深衣制度의 意義 考察

— 儒教經典을 中心으로 —

大田實業專門大學 衣裳科
助教授 金正子

目 次

- | |
|-----------------------|
| I. 緒 論 |
| II. 深衣制度 |
| III. 儒教經典을 통해 본 深衣 意義 |
| IV. 結 論 |

I. 緒 論

深衣는 古代 中國에 있어서 天子의 養老禮服·諸侯의 祭服·士大夫의 燕服 및 禮服으로 사용되었으며 庶人에게는 吉凶服으로 男女 모두에게 착용되었고 후에는 儒家들이 주로 입었었다. 韓國에서는 朝鮮朝에 儒生들의 法服으로 많이 착용되었다.

深衣制度는 上衣와 下裳으로 각각 따로 재단하여 바느질한 후 허리에서 合縫한 것으로 그 모양은 소매가 둥글고 깃은 모가 났으며 옷의 길이는 복사 뼈까지 내려오고 소매 부리 裳端 등 옷의 가장자리에는 검은色 緞을 두른다.

즉 深衣는 일정한 制度가 있어 規矩準(權衡)繩에 따라 만들어서 소매는 規(曲尺)에 맞추어 둥글게 하고 깃(曲袷)은 矩로써 각지게 하였으며 上衣의 등솔기와 치마의 뒤 중심 솔기는 곧은 직선으로 하여 繩을 짚어졌고 裳의 밑단은 權衡으로 평평하게 하였다.

이러한 深衣의 各部分은 哲學的 意味와 입는 사람들의 思想을 내포하고 있는데 衣部와 裳部가 나뉜 것은 각각 乾·坤(하늘·땅)을 뜻하며 12폭으로 만든 것은 12개월을 意味하며 선을 두른 것은

父母에 대한 孝道나 恭敬을 나타내고 있다.

「禮記」에는 “소매를 둥글게 해서 規와 같이 된 것은 손을 들어 음하고 敬意를 가다듬게 함이요 뒤로는 直을 짚어지고 앞으로는 方을 안은 것은 政治를 정직으로 하고 사물처리를 方正하게 함이요 치마의 끝단이 저울과 같이 평평하게 함은 뜻을 평안히 하고 마음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本考는 深衣 形態가 갖는 意義에 대해 「禮記」原文을 보다 더 깊고 넓은 뜻을 밝히고자 한다.

1) 그동안 深衣에 관한 研究는 주로 深衣制度로서 中國 韓國 日本에서 수많은 學者들에 의해 研究되었으나 「禮記」原文에 一致하는 構成論을 발표하지 못했었다. 筆者는 「深衣構成의 實證的 研究」¹⁾와 「深衣構成에 관한 研究」²⁾에서 이미 발표된 深衣制度의 不合理한 점을 지적하면서 實物製作을 통해 「禮記」原文에 一致하는 深衣制度를 발표하였다. 가장 難解했던 續衽鉤邊 曲袷 三袂 등의 문제를 달리 糾明했다. 그리고 帖裏과 深衣를 比較服飾史的 研究를 통해 서로 始源이 다른 옷임을 밝혔다.

2) 金仁淑의 「深衣考」³⁾는 深衣의 由來 用途 다른 옷에 미친 영향과 여러 學者들이 주장하는 深衣制

1) 金正子, 「深衣構成의 實證的 研究」 國際服飾學會誌 No 7. 1990.

2) 金正子, 「深衣構成의 研究」 韓國服飾 第8號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1990.

3) 金仁淑, 「深衣考」 梨花女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4.

度 등에 대해 소개한 최초의 연구로 공헌이 크다.

3) 鄭惠敬의 「深衣에 관한 研究」⁴⁾는 中國과 韓國의 深衣制度를 文獻을 中心으로 時代別로 체계를 세운 博士學位論文이다. 深衣制度는 간단명료하게 모양과 치수가 「禮記」에 기록되어 있다. 많은 深衣論이 주장된 이유는 「禮記」原文을 잘못 풀이함으로써 생긴 혼돈과 착각일진대 諸說들을 「禮記」原文에 비추어 照明해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동안 주로 深衣制度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深衣의 象徵性을 다룬점은 深衣의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평가된다.

4) 本考는 深衣의 各部分 形態가 갖는 意義를 「大學」「論語」「周易」「周易總目」「書經」등 儒教經典을 근거로 해서 考察한 것이다. 深衣의 上衣下裳이 갖는 乾坤의 意味와 深衣의 部分 形態가 方圓平直 즉 規矩準(權衡)繩으로 構成되어 있는 뚜렷한 理由와 意味를 통하여 深衣를 입는 古代 東洋人이 갖었던 思想이나 哲學 人生觀을 알아 보고자 한다.

II. 深衣制度

「禮記」는 漢武帝때 河間 獻王이 孔子와 그의 제자 및 그 이후 여러 學者들이 지은 131篇의 古書를 수집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는 것은 宣帝때 제작된 49篇이다. 「禮記」의 玉藻 第39卷 第39篇 深衣條와 王制篇 檀弓上篇에는 深衣의 制度와 치수, 深衣가 내포하는 意味, 用途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다.

「禮記」第39卷 第39篇 深衣條⁵⁾ 本文은

예전의 深衣는 대개 제도가 있어서 規矩에 맞추고 繩權衡에 맞추었다. 짧아도 살이 보이지 않으며 길어도 흙이 덮이지 않으며 續衽鉤邊이며 허리가 밑자락의 半이었다. 겨드랑 슬기의 넓이는 팔꿈치를 움직일만 하게 하고 소매길이는 접어서 팔꿈치에 닿게 하고 떠는 내려가도 방광을 누르지 않고 갈비를 누르지 않으며 뼈가 없는 곳에 닿아야 한다. 열두 폭을 지어서 그로써 12월에 응하고 소매는 둥글게 해서 圓에 응하고 굽은 옷깃은 曲尺과 같아서 그로써 方에 응하고 등술은 치마 가운데 폭의

선과 이어서 곧게 복사뼈에 닿게 하여 直에 응하고 아랫단은 저울과 같아서 平에 응한다. 그러므로 소매가 둥글어서 規와 같이 된 것은 다닐 때 용의를 단정히 함이요 直을 굽어지고 方을 안은 것은 정치를 正直으로 하고 사물처리를 方正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周易에 이르기를 坤卦의 六二爻의 움직임은 곧으면서도 方正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락이 저울대와 같다는 것은 뜻을 평안히 하고 마음을 공평하게 갖는 것이다. 五法을 이미 배웠고로 聖人이 입는다. 그러므로 規矩는 그 私없음을 취했고 繩은 그 곧음을 취했고 權衡은 그 평평함을 취한 것으로 先王이 이를 귀히 한다. 그러므로써 文·武의 옷으로도 할 수 있고 접대와 외교를 맡은 관리의 옷으로도 할 수 있고 가히 군대도 다스릴 것이다. 온전하며 또 낭비하지 않으니 朝服 祭服의 다음이다. 父母와 祖父母가 살아계실 때에는 옷의 緣은 그림 무늬로 하고 부모만 계실 때에는 靑色緣으로 하고 孤子이면 白色緣으로 하며 裳端과 袖口에 대한 緣의 넓이는 각 한 치 반이다.

古者 深衣 蓋有制度 以應規矩繩權衡 短毋見膚 長毋被土 續衽鉤邊 要縫 半下

格之高下 可以運肘 袂之長短 反詘之 及肘 帶下毋厭髀 上毋厭脅 當無骨者

制十有二幅 以應十有二月 袂圓 以應規 曲袷 如矩 以應方 負繩 及踝 以應直 下齊 如權衡 以應平

故 規者 行舉手 以爲容 負繩抱方者 以直 其政方其義也

故 易曰 坤六二之動 直以方也 下齊 如權衡者 以安志而平心也 五法 已施 故 聖人 服之 故 規矩 取其舞私 繩 取其直 權衡 取其平 故 先王 貴之 故 可以爲文 可以爲武 可以擯相 可以治軍旅 完且弗費 善衣之次也

具父母 大父母 衣純以續 具父母 衣純以靑 如孤子 衣純以素純 袂緣純邊 廣 各寸半

이상이 深衣制度和 深衣가 내포하는 意味에 대한 「禮記」의 기록이다.

III. 儒教經典을 통해 본 深衣 意義

儒教思想은 天地自然 섭리에 따라 人事를 마련하

4) 鄭惠敬, 「深衣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5) 秦漢哲, 「禮記」下 第39卷 第39篇 深衣, 平凡社, 1982. p. 463~466.

는 學問이다. 가장 現實的이고 合理的인 方法으로 事物을 다루기 때문에 自己의 마음을 바로 잡고 몸을 다스림에도 우선 주변 환경의 보고 듣고 입고 먹고 앉고 서고 움직이고 그치는 데서 부터 하나 하나를 바르고 차례있게 하려하니 이것이 바로 禮節과 道義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列女傳」에는 胎敎를 말하는 중에 “옛날에 婦人이 임신을 하면 잠을 기울게 자지 않고 난간에 앉지 않고 기울게 서지 않고 간사한 맛의 음식을 먹지 않고 베임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古者婦人 妊子寢不側坐不邊 立不陂 不食邪味 割不正 不食)고 했으며 孔子께서도 “베임이 반듯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며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割不正 不食 席不正 不坐)라는 말이 「論語」 鄉黨篇에 있다.

이러한 類의 기록은 여러 經典에 자주 볼 수 있는 예이며 飲食居處 뿐만 아니라 衣服의 制度에서도 그러한 예가 있으니 특히 深衣制度이다. 緒論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深衣는 方圓平直으로 構成되어 있어 그 모양이 갖는 意味가 매우 심오하다. 「禮記」深衣篇 小註⁶⁾를 보면 深衣가 내포하는 意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이 있다.

「長樂陳」氏는 말하되 “12月은 天數이고 소매를 둥글게 해서 規에 應하니 둥글음은 하늘의 體이며 曲袷을 모지게 해서 矩에 應하니 모짐은 땅의 象이라. 곧은 등수를 발굽까지 닿게 함은 直에 應하고

아랫자락이 가지런하게 저울대(權衡)와 같이 함은 平에 應하는 것이니 直과 平은 사람의 道이다. 무엇으로 그러함을 아는가. 玉藻에 말하기를 면류관의 수술이 12개인 즉 하늘의 수이다. 대저 하늘의 큰 수가 12개에 불과한 고로 달도 12번을 지나면 1년을 이르니 深衣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12폭이라야 좋은 옷이다. 그 옷의 수가 하늘의 수와 합함이 있으므로 12月과 應하는 바이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하늘인데 소매는 움직여서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땅인데 깃(衿)은 멈추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그는 「孟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規와 矩는 方圓의 지극함이라” 하였고 또 「文中子」의 말을 인용하면서 “圓한 것은 動하고 方한 것은 조용한 데서 하늘과 땅의 마음을 본다고 했으니” 이것이 그 뜻이다. 또한 平은 기울지 않는 것이고 直은 굽지 않는 것이다. 또 「書經」을 인용하여 “平康, 正直이라” 하였고 「論語」를 인용하여 “사람이 사는 것은 直이다”라고 했으니 여기서도 負繩下齊의 意義를 볼 수 있다 하였다.

이상은 「禮記」의 小註에 深衣에 대한 언급으로 너무 간단하고 불충분하므로 이러한 말들을 근거로 하여 더 깊은 좋은 항목이 儒敎經典에 있으므로 첨가하고자 한다.

「孟子」第4篇 離婁章句⁷⁾에 보면 孟子曰 “離婁와 같이 눈이 밝고 空輪子와 같이 기술이 뛰어나도

6) 長樂陳氏曰 十二月者 天數也 袂圓以應規 而圓者 天之體 曲袷如矩以應方 而方者地之家也

負繩及踝以應直 下齊如權衡以應平 而直與平者 人之道 何以知其然耶 玉藻曰 戴冕璪十有二旒 則天數也 蓋天之數不過十二

故 月之至于十二而後 成歲功猶之深衣也 必十二幅而後 可以爲衣之良也 唯夫衣之數 有以合乎天之數 此所以爲十二月之應也

著不息者 天也 而袂者 動而不息也 著不動者 地也 而衿者 靜而不動也

孟子曰, 規矩 方圓之至也

文中子曰, 圓者動 方者靜 其見天地之心乎 此其意也至於平 則不傾也 直 則不屈也

書曰, 平康 正直

論語曰, 人之生也 直 此又足以見負繩下齊之義也

7) 泰漢哲, 「孟子」, 平凡社, 1985, p. 376~379.

孟子曰, 離婁之明 公輸子之巧 不以規矩 不能成方圓

師曠之聰 不以六律 不能正五音

堯舜之道 不以仁政 不能平治天下……

聖人既竭目力焉 繼之以規矩準繩 以爲方圓平直 不可勝用也

既竭耳力焉 繼之以六律正五音 不可勝用也

既竭心思焉 繼之以不忍人之政 而仁覆天下矣

컴퍼스나 曲尺을 쓰지 않으면 완전한 사각형이나 원을 그릴 수 없다. 또 師曠과 같이 귀가 밝아도 六律을 쓰지 않으면 五音을 바로 잡지 못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堯임금과 舜임금의 도를 높인다 해도 실제로 仁政을 펴지 않으면 천하를 화평하게 다스릴 수 없다……” “聖인들이 자기의 밝은 시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썼을 뿐만 아니라 더욱 컴퍼스나 曲尺이나 수평이나 먹줄을 사용해 솜으로써 사각형이나 원형 또는 평면이나 직선으로 된 여러 물건을 만들었고 따라서 그들의 능력을 마냥 발휘했던 것이다”

또 孟子 離婁篇 規矩章⁸⁾에서도

孟子曰 “컴퍼스나 曲尺은 方形과 圓形을 그리는 표준이며 聖인은 人間倫理의 표준이다. 임금이 되고자 하면 임금의 도리를 다 해야 되며 신하가 되고자 하면 신하의 도리를 다 해야 한다. 임금이나 신하나 모두가 堯임금과 舜임금을 본받으면 된다. 舜이 堯임금을 섬기던 지극한 태도가 아닌 다른 태도로 자기의 임금을 섬기면 그것은 자기 임금을 진정으로 공경하지 않는 신하다. 또 堯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던 정성된 태도가 아닌 다른 태도로 백성을 다스리면 그런 임금은 백성을 해치는 자라 하겠다”

本篇은 孟子의 政治思想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당시 君王에 대한 教導에 임할 때에 取한 태도로 아무리 仁慈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임금일지라도 先王之道를 따르지 않고는 理想的인 王道를 성취할 수 없다하였다. 百姓을 볼 수 있는 中國 傳說상의 인물인 離婁나 攻妙한 손재주를 가진 公輸子 일지라도 컴퍼스나 曲尺이 해내는 만큼 완전한 원형이나 정방형이나 수평이나 수직을 그릴 수도 만들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컴퍼스나 曲尺이 方圓平直

을 갖는 표준이 되는 것처럼 聖인은 人間倫理의 표준이 된다. 즉 소매의 圓과 깃의 方과 등솔의 直과 치마자락의 平이 되는 方圓平直은 規矩準繩이 없으면 올바르게 그리기가 불완전하다. 이는 堯舜之道의 본받음이 없이는 仁政이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상으로 볼 때 儒敎에서 人間道義를 이루는 修己治人과 王道의 완성은 自己反省과 先王之道를 따라 행해야만 되는 것처럼 方圓平直을 위해서는 規矩準繩을 이용해야 이를 수 있다는 것과 비유하고 있다.

또 「孟子」 第2篇 公孫丑 浩然章⁹⁾에서

公孫丑曰, “감히 여쭙어 보겠습니다. 무엇을 浩然之氣라고 합니까?” 孟子曰, “말하기 어렵다. 浩然之氣는 크고 지극히 강한 것이다. 곧게 키우고 손상시키지 않으면 天地間에 충만할 것이다” 하였다. 다시 말해서 浩然之氣는 그 기운이 크고 굳세어서 直으로 길러야 한다. 하여 곧음을 키우므로 浩然之氣를 키울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孟子는 설명하였다. 곧음에 대해서

「書經」 第4篇 「周書」 第6章 洪範章¹⁰⁾에는 “은 천하를 다스리는 큰 규범으로 임금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성을 말하는 것으로 첫째는 바르고 곧은 것이요 둘째는 강함으로 이기는 것이요 셋째는 부드러움으로 이기는 것이다. 평화롭고 안락함에는 바르고 곧음으로 하고 강하고 굴하지 않음에는 강함으로 이기도록 하고 화합하고 따름에는 부드러움으로 이기게 한다”

임금의 德性으로 첫째 바르고 곧은 것을 제일로 삼고 있다. 곧은 것에 대한 더 깊은 의미는

「論語」 第6篇 雍也章¹⁰⁾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의 삶은 원래 정직

8) 上揭書, p. 384~385.

孟子曰, 規矩 方圓之至也 聖人, 人倫之至也
欲爲君 盡君道 欲爲臣 盡臣道
二者皆法堯 舜而已矣
不以舜之所以事堯事君 不敬其君者也
不以堯之所以治民 賊其民治者也

9) 上揭書, p. 180, “敢問何謂浩然之氣?”

曰: “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於天地之間”.

10) 金仁喆, 「論語」 韓國書籍公社, 서울 1983. p. 130.

子曰 “人之生也直 罔之生也 幸而免”

한 것이다.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는 것은 요행히 난을 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天性은 본디 善하다는 것이 儒敎의 人間觀이다. 正直함이 人生의 必然이므로 不正한 것은 通하지 못하고 人生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生의 이치요 善의 원칙인데 가끔 不直이 直의 道를 무시하고 행세하는 것은 必然이 아니고 우연이며 요행이다. 直은 단순한 正直의 뜻만이 아니고 自然한 것, 人間的인 본성에서 나온 것, 사람의 眞情의 흐름을 의미한다.

「大學, 第10章 治國平天下¹¹⁾」에서는 “이른바 天下를 화평케 함이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다는 것은 윗자리에 있는 이들이 늙은이를 늙은이로 섬기면 국민들이 孝性에 興起하고 윗자리에 있는 이들이 어른을 어른으로 받들면 恭敬에 興起하여 윗자리에 있는 이들이 외로운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 국민들도 저버리지 않나니 이리므로 契矩之道를 지니느니라. 윗사람에게서 느낀 것으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 일이고 아랫 사람에게서 싫다고 느낀 것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 일이고, 앞 사람에게서 싫다고 느낀 것으로 뒷 사람을 먼저 하지 말 일이고, 윗 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껴진 것으로 앞 사람을 따르지 말 일이고, 오른쪽 사람에게서 싫다고 느낀 것으로 왼쪽 사람에게 건너지 말 일이고, 왼쪽 사람에게서 싫다고 느낀 것으로 오른쪽 사람에게 건너지 말 일이니 이런 것으로 말해서 契矩之道라 한다”

契는 度, 즉 헤아리는 뜻이고, 矩는 모난 물건을 만드는 자이다. 따라서 契矩之道는 曲尺으로 재어서 法度를 얻음을 비유한 말이다. 「荀子」는 “五寸의 矩로 천하의 모난 것을 다한다”고 했는데 矩를 가지고 미루어 가면 재어지지 않거나 마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음은 마치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가면 이해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 이처럼 契矩之道는 자신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비유로 쓴 것이다.

「論語」에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라든가 역시 「論語」에서 “子貢이 말한 바 내가 남에 加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나도 역시 남에게 加하고 싶지 않다”(我不欲人之 加諸我也 我亦欲無加諸人)라든가, “자기에게 베풀어지기 원치 않는 것은 역시 남에게도 베풀지 말 일이다”(忠恕違道不遠 施諸己而不願 亦勿施人)라고 한 말과 같다. 矩는 마음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契矩之道는 推己度人의 道이다. 따라서 이 道를 실현하려면 먼저 자신의 個性 안에 보편적인 人間性을 包容해야 한다. 個性의 위대함은 바로 人間의 보편성을 최대한으로 包容한 個性이요 동서고금의 賢인들이 다 그러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契矩之道를 최대한으로 體得 實現하였다. 治國平天下를 위해서 근본적인 道인 이 契矩之道는 비단 정치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전제되는 데에서 일어나는 人間一切의 모든 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¹²⁾

이상과 같은 意義를 갖는 深衣는 매 構成要素가 規矩準繩으로 되어 있다. 衿과 스나 曲尺 먹통이 方圓平直을 갖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聖人은 人間倫理의 표준으로 先王之道를 따라야만 王道를 完成할 수 있다. 곧음(直)은 크고 강해야 浩然之氣를 얻을 수 있고 直은 하늘이 준 本性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과연 深衣의 規矩準繩은 그 意義가 매우 심오하다. 儒學이 學問的이고 現實的인 것처럼 深衣를 착용하는 사람은 自己의 個性을 초극한 보편적인 本性으로 최대한으로 包容하고 體得하고 實現하려 하였다.

深衣의 構成은 上衣와 下裳을 허리에서 연결하여 만든 袍이다. 上衣는 乾(하늘)을 下裳은 坤(땅)을 의미하므로 宇宙의 構成原理를 상징한다. 上衣와 下衣는 모두 합하여 12폭으로 지어서 그로써 12

11) 許煜, 「大學」第10章 治國平天下 成均書館 1976. p. 81~84.

所謂平天下 在治其國者 上 老老而民 興孝
上 長長而民 興弟 上 恤孤而民 不倍
是以 君子 有契矩之道也
所惡於上 毋以使下 所惡於下 毋以事上
所惡於前 毋以先後 所惡於後 毋以從前
所惡於右 毋以交於左 所惡於左 毋以交於右
此之謂契矩之道也

12) 上揭書 p. 82~85.

달에 응하게 하였다.¹³⁾ 하늘과 땅은 모든 현상과 온갖 사물을 包容하고 生成하고 生育시키고 있다. 天體의 현상은 번거롭지 않고 요란하지 않으며 확연하며 사람에게 쉬운 것을 보여주고 순탄하여 간편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孟子」는 “하늘에 순하면 살고 하늘에 거역하면 죽는다”(順天者存 逆天者亡)라 했다. 따라서 사람은 본성속에 하늘을 지각하고 따르는 속성이 있다. 결국 하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자이므로 그의 天命을 따르게 되었으니 사람이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을 가다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명수를 잘 받아 자기의 책임을 다 하는 일이다.

前途한 「長樂陳」氏나 「中文子」는 “소매의 둥글음은 하늘의 體이며 曲袷의 모진 것은 땅의 像이라 하여 圓한 것은 動하고 方한 것은 조용한 데서 하늘과 땅의 마음을 본다” 하였다.

「周易總目」¹⁴⁾에는 “모든 數의 始初는 一陰一陽일 뿐이니 陽의 像은 圓이요 陰의 像은 方이라는 말이 있고 「周濂溪」¹⁵⁾의 「太極圖說」에는 “太極이 動하면 陽이 되고 靜하면 陰이 된다”고 한 말이 있다.

「周易總目」¹⁶⁾ 「伏羲 六十四卦 方位之圖」의 풀이에 “외의 둥근 것은 動으로 天이 되고 모진 것은 靜으로서 地가 된다”고 한 말이 있다.

이러한 말들과 深衣의 形態를 연관지어 볼 때 深衣의 소매가 둥글음(圓)은 陽으로 하늘의 體이며 양 소매는 움직이어 動하고 깃이 모진(方) 것은 陰으로 地의 像이라 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靜하다.

深衣를 입은 사람은 안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天地의 법칙을 자신에 옮겨서 생각하려 하였다. 周易의 모든 이치는 陰陽의 相交나 협력에서 生成하고 발전하는 근원이 된다고 하여 이러한 원칙에서 宇宙觀 人生觀을 보았고 陰陽二元理를 보았다.

IV. 結 論

深衣는 上衣下裳으로 되어 있고 매구성 요소가 規矩準繩 즉 方圓平直으로 되어 있다. 方圓平直은 深衣를 입는 사람의 思想과 哲學 내지 人生觀·宇宙觀을 나타내는 함축성 있는 의미를 內包하고 있다. 儒教經典을 통해 본 深衣制度의 意義를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1) 「孟子」의 離婁章에게 圓(規)나 曲尺이나 繩(繩)은 方圓平直을 굿는 표준이 되는 것처럼 聖人은 人間倫理의 표준이다. 따라서 自己反省과 先王之道를 표준으로 하여야 修己治人の 完成과 이상적인 仁政을 할 수 있다.

2) 「孟子」公孫丑章과 「書經」洪範章과 「論語」雍也章에서 直(權衡, 繩)은 임금의 첫째가는 德目으로 키우면 浩然之氣를 얻을 수 있다. 直은 正直의 뜻만 아니라 自然한 것, 人間的인 本性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3) 「大學」治國平天下章에서 契矩之道는 曲尺으로 세상의 모난 것을 재듯이 德을 근본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他人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契矩之道를 얻기 위해서는 個性을 초극한 보편적인 人間性을 體得 實現하는 것이다.

4) 「周易」의 모든 이치는 陰陽의 相交와 協力에서 生成하고 發展의 근원이 된다하여 深衣의 上衣는 乾(하늘)을, 下裳은 坤(땅)을 의미하여 宇宙의 構成原理를 상징한다. 深衣를 입는 사람은 안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天地의 自然法則을 자신에 옮겨 생기게 하려 하였다. 이러한 뜻을 深衣에 두고 하늘은 陽으로 둥글고 動하여 소매 모양에 두었고 땅은 陰으로 모지고 靜하여 깃의 모양에 두었다.

이상으로 深衣는 規矩準繩으로 되어 있어 動靜方圓의 이치와 사람의 公平 正直의 도리와 天地 自然

13) 金正子, 前掲書, p. 103.

14) 「周易總目」學民社出刊 周易附諺解 I, p. 42.

“...凡數之始 一陰一陽 而已矣 陽之象圓...陰之象方.....”

15) 周濂溪, 「太極圖說」

無極而太極 太極 動而生陽 動極而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分陰分陽 兩儀立焉

16) 「周易總目」學民文化社 周易附諺解 p. 93.

“.....圓於外者爲陽 方於中者爲陰 圓者動而爲天 方者靜而爲地也”

法則에 順應하는 深長無窮한 意義가 함축되어 있음
을 儒教經典을 통해 考察해 보았다.

參 考 文 獻

禮記
大學
論語
周易
周易總目

書經

太極圖說

金正子, 「深衣構成의 實證的 研究」 國際服飾學會誌
No 7. 1990.

——, 「深衣構成에 관한 研究」 韓國服飾 第8號,
石宙善民俗博物館1990.

金仁淑, 「深衣考」 梨花女子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4.

鄭惠敬, 「深衣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院博士學位論
文, 1990.